

세계 3대 암호화폐 '리플' 브랜드 갈링하우스 대표

“투자자·기업보호 위해 암호화폐 규제 찬성”

단기간 급성장 이유로 변동성 커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 카카오·빗썸 등으로 시장 커질 것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세계 3대 암호화폐로 꼽히는 리플(XRP)의 브랜드 갈링하우스 대표(CEO·사진)가 한국을 찾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기대를 밝혔다.

브랜드 갈링하우스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카카오가 블록체인 자회사를 만들고, 빗썸은 자동대출금리를 만들려 한다”며



아시아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브랜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리플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갈링하우스 대표가 이번에 한국을 찾은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남다른 비중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를 주도하는 주요 시장이다. 원화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10% 정도로 이는 일본의 55%, 미국 25%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다. 갈링하우스와 같은 암호화폐 개발자 및 CEO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현재의 시장 규모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갈링하우스 대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변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시장이 청소년기에 있고

그만큼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시아투어의 일환으로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13일 한국을 찾은 그는 이번 자신의 방문 목적에 대해 리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대표는 “리플은 이미 수년전부터 무분별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경고해 왔다”며 “그간 일부 암호화폐가 불법적 거래에 이용되기도 했지만, 리플과 같이 각국 당국과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솔루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향후에도 정식 금융기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대표는 15일 오전 출국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iaj@donga.com

아시아나항공, 환승내항기 증편 ‘환승전용’ 부산-인천 하루 2회 운항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25일부터 지방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해 인천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을 오가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증편한다.

기존 하루 1회 운항에서 2회로 늘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첫 편은 오전 7시, 두 번째 편은 오후 4시에서 6시(요일마다 다름)에 출발한다. 인천공항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첫 편은 오전 6시30분, 두 번째 편은 오후 7시20분에 출발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인천공항과 지방 국내선 구간을 운항하는 해외여행자와 수하물 전용 항공편이다. 아시아나항공 환승전용 내항기는 국제선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산 출·도착하는 인천 경우 환승객만 이용할 수 있다. 출국 때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뒤 국제선 항공편으로 환승한다. 반대로 입국시에는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 마치고 환승 내항기를 탄 뒤 부산공항서 입국수속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환승전용 내항기’ 증편으로 부산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미주로 가는 항공 스케줄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부산 등 동남권에서 인천을 거쳐 유럽이나 대양주로 환승하는 장거리 승객들도 한 번의 수속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데이터 ↑ 위약금 ↓ ...이통사 요금전쟁 불붙었다

KT 데이터 제공 늘린 요금제 출시

KT 1GB 3만원대 무약정 요금제로 경쟁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유예제도도 도입

이동통신 요금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KT가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올해 들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요금체계를 손질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월2만원(대), 1GB 데이터 제공’의 ‘보편요금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업계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KT는 14일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

저 약정 없이 기존 요금제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가 눈길을 끈다.

월정액 3만원대로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의 경우 보편요금제에 꽤 근접한 수준이어서 다른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무약정이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지원금 등은 받을 수 없다. KT도 이 요금제에 대해 자급단말 구매 고객이나 중고단말 이용 고객 등 약정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 수요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쟁사들도 최근 소비자 혜택을 늘린 새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의 경우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무약정 플랜’을 5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데

이터 제공량을 2배로 늘린 무약정 프로그램을 내놨고, 지난달에는 속도와 용량 제한이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위약금 부담도 낮추고 있다. KT는 이번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할인반환금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20% 선택약정 고객이 25%로 재약정하면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해 준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이와 함께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이 되도록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한 바 있다.

한편, KT는 이번에 자사 고객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으며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Y데이터박스’를 출시하고, 로밍 음성통화 요금 부가방식을 기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하반기 개편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암호화폐 시세, 포털·카톡서도 확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서도 암호화폐 시세를 볼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4일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동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려면 거래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야 했다. 시세 정보는 포털을 통한 검색 결과로, 카카오톡에서는 샵(#)검색어로 제공된다. 다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이용 가능하며, 네이버는 4월 초 적용 예정이다.

SKT ‘누구’ 대화량 월 1억건 돌파

SK텔레콤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의 사용자 대화량이 월간 1억건을 돌파했다. 월간 실사용자도 2월 기준 300만을 넘었다. SK텔레콤은 “T맵을 비롯해 키즈폰, 셋톱박스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미니 출시 당시 11만 명이었던 누구의 월간 실사용자는 지난해 9월 ‘T맵x누구’ 출시 이후 늘기 시작해 추석 연휴가 있던 10월 236만 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월간 실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근 기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앞세워 호주 시장 진출

편집숍 세프라 통해 시드니·멜버른 등 진출 서경배 회장 “글로벌 신규 시장 지속 개척”

아모레퍼시픽 라네즈가 14일 호주 시장에 첫 진출했다.

호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주요 도시에 유명 편집숍 세프라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진출했다. 앞으로 이 매장에서 워터 슬리핑 마스크, 워터뱅크 에센스 등을 주력제품으로 적극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호주 소비자들은 자외선이 강한 기후의 영향으로 피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수년 전부터 호주의 화장품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해 분석하며 진출 여부를 타진해왔고 올 초 멜버른에 호주 법인을 설립했다.



배우 이상경이 모델로 나선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호주 현지 브랜드 광고.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만의 특이성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를 호주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며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자난해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매출의 타격을 받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자 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의지도 담겼다. 서 회장은 “라네즈를 시작으로 아모레퍼시픽만 의 특이성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를 호주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며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토달홈케어기업 현대렌탈케어가 14일 공기청정기 ‘큐밍 더 케어’를 내놓았다. 3방향 입체 공기 청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생활먼지와 반려동물의 털 등 입자가 큰 먼지부터 극초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비자코리아 신임 사장 패트릭 윤 선임

패트릭 윤(사진)이 비자코리아 새 사장으로 선임됐다.

패트릭 윤 신임 사장은 컬럼비아비즈니스스쿨 및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10년 이상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싱가포르, 대만, 영국 지사에서 전략, 비즈니스 개발, M&A 등의 업무를 이끌어 왔으며, 지난 4년 동안은 SC제일은행의 리테일 금융본부장을 총괄했다. 미국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고, 명품 관련 스타트업에서 5년 간 CEO



로 일하기도 했다. 비자 측은 “패트릭 윤 신임 사장은 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바라볼 것”이라며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카드업계와 동반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위메프, 워라밸로 운동·교육 상품 인기

위메프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층이 늘면서 요가나 영어학원, 음악학원 등 관련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한 달 동안 판매된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요가 이용권은 108.2%, 피트니스 이용권은 62.0%, 실내클라이밍은 48.3% 증가했다. 필라테스와 수영강습 이용권도 각각 30.2%, 13.2% 늘었다. 특히 영어학원 수강권



이 905.8%, 중국어학원은 702.2% 등 어학교육 매출이 급증했다. 이밖에 실내체육 관련 상품 매출은 74.2% 늘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개인 여가 생활을 중시하며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려는 고객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2018 가송예술상 공모전 30일까지 접수

가송재단과 동화약품이 ‘2018 가송예술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부채 주제 부문’과 ‘콜라보레이션 부문’이다. 부채 주제 부문은 부채와 연관된 내용을 주제로, 콜라보레이션 부문은 부채 장인과 협업 가능한 시각예술 전 부문에 대한 작품이다. 만 40세 이하,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작가는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예선은 21일부터 30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 우편으로 각 부문 접수양식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진출자는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그룹전시회에 참여한다. 정정욱 기자